

7. 전립선암의 뇨 세포학적 소견 2예 보고 Prostatic Adenocarcinoma in Urine Cytology -2 cases report-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박인애, 함의근

뇨세포 검사로 전립선암 세포를 관찰하는것은, 전립선이 요로와 직접 통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주 드문 일이다. 연자들은 뇨 세포 검사상 종양세포가 관찰되고 조직검사로 확진된 전립선암 2예를 검험하고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1은 67세 남자로 4개월부터 시작된 빈뇨, 혈뇨, 및 야간뇨를 주소로 입원 하였다. CT 검사상 전립선과 방광 후벽, 정액 소낭 및 직장 주변 지방 조직까지 침윤한 전립선암의 소견을 보였다. 증례 2도 67세의 남자로 혈뇨를 주소로 입원하였는데 과거력상 4개월전에 혈뇨로 내원하여 경뇨도 생검으로 전립선의 결절성 증식으로 진단 받았었다. 조직검사상 역시 방광까지 침윤한 전립선 암이었다. 뇨세포 검사상 증례 1에서는 소수의 크기가 작은 둥근 세포들이 단독으로 혹은 2~3개씩 모여서 관찰되었는데 세포질은 거의 없었고 핵은 과염색성이었고 커다란 핵소체를 갖고 있었으며 간혹 세포질 내에서 분비공포가 관찰되어졌다. 증례 2의 뇨세포 검사에서는 다수의 둥근 세포송이들과 함께 역시 단독으로 흩어져서 관찰 되는 크기가 작은 둥근 세포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들 세포송이들의 변연은 비교적 평활하였고 이들 역시 작은 양의 세포질을 갖고 있었다. 세포학적으로 이행성 상피 세포암과 감별하여야 하나 세포송이들이 유두상이 아니고, 세포들이 단독으로 관찰되는 경우도 분화가 나쁜 이행성 상피세포암 세포와는 달리 관찰되는 세포의 수가 아주 적고 세포의 크기가 작은 점으로 구별이 가능하였다.

8. 간의 전이성 암종 22예의 세침흡인 세포학적 검색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of Metastatic Tumors of the Liver -Analysis of 22 Cases-

원자력병원 해부병리과
명나혜, 고재수, 하창원, 조경자, 장자준

간은 전이성 암종이 가장 잘 침범하는 장기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원발성 간세포암이 많은 지역에서는 간세포암이 중등도 이하의 분화를 보이는 경우에 늘 전이성 암종과의 감별이 문제가 된다. 간세포흡인 세포학은 정확한 진단 및 감별에 매우 유용함이 널리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1986년부터 1991년 상반기까지 간세침흡인술을 통해 전이성암으로 의심된 100예중 원발 병소가 확인된 22예의 각종 전이성 암을 대상으로 간암과의 감별에 도움이 되는 세포학적 변수와 각 종양의 특징적인 세포학적 소견을 검토하였다.

전이성 선암 9예, 편평 세포암 7예, 소세포암 1예, 연골 육종 1예, 유암 1예, 악성 흑색종 1예, 선양 낭성 상피암 1예, 신세포암 1예를 포함하는 22예를 검색한 결과, 59% (13예)에서 괴사성 배경이 다양한 염